

Jihyun Jung: Hangdog

정지현: 행도그



2023.11.3.-2024.1.21.

A

SJ

C

《정지현: 행도그》는 예기치 못한 물질의 결합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생각의 경로를 지나 뜻밖의 결과를 도출하는 정지현의 조각의 과정과 형식을 관찰한다. 전시 제목 ‘행도그(hangdog)’는 ‘수치스러운’, ‘낙심한’, ‘풀이 죽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클라이밍에서는 등반하다 추락했을 경우 매달린 자리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등반을 이어가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행’과 ‘도그’의 결합으로 개별 단어가 가진 본래 의미와는 다른 상황을 일컫게 된 ‘행도그’의 구조와 쓰임처럼 이번 전시에서 ‘행도그’는 사물의 원본에서 멀어지고 있는 정지현의 작업 상태와 구성 방식을 지시한다.

정지현의 작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에서 느닷없이 마주하는 여러 기물과 용도 폐기된 산업재를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쓸모와 효용을 다하고 버려진 사물을 작업실로 이동시켜 조각의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도시에 놓인 사물의 상태 그대로를 캐스팅해 물체의 형만 옮겨와 작업의 뼈대로 삼기도 한다. 이때 정지현은 여러 가지 캐스팅 방식을 활용하는데, 외부 환경에서 신속하게 본을 뜨기 적합한 재료인 유토로 몰드를 만들거나, 알루미늄 망으로 사물을 감싼 후 손으로 꺾꺾 눌러 표면의 굴곡을 복제하기도 하고, 휴대폰의 3D 스캐닝 기능을 활용해 사물의 형을 손쉽게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하기도 한다. 존재하는 구체적 사물에 기인하지만 실재가 허물어지고 텅 빈 껍데기로 남게 된 사물의 허상은 정지현의 손의 감각에 의해 다시 실재하는 조각의 형질로 전환된다. 이 때 여러 감각 요소의 총체로 객관화된 사물의 표상은 조각적 행위라는 매개 작용에 의해 정지현의 감각 기관으로 수렴된다. 현실에 존재하던 사물이 여러 단계의 감각 전이, 실재와 허상의 교차를 지나 마침내 조각의 몸으로 직조되면서 사물은 더이상 그 이름에 부여된 통념과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은 중간적인 상태로 유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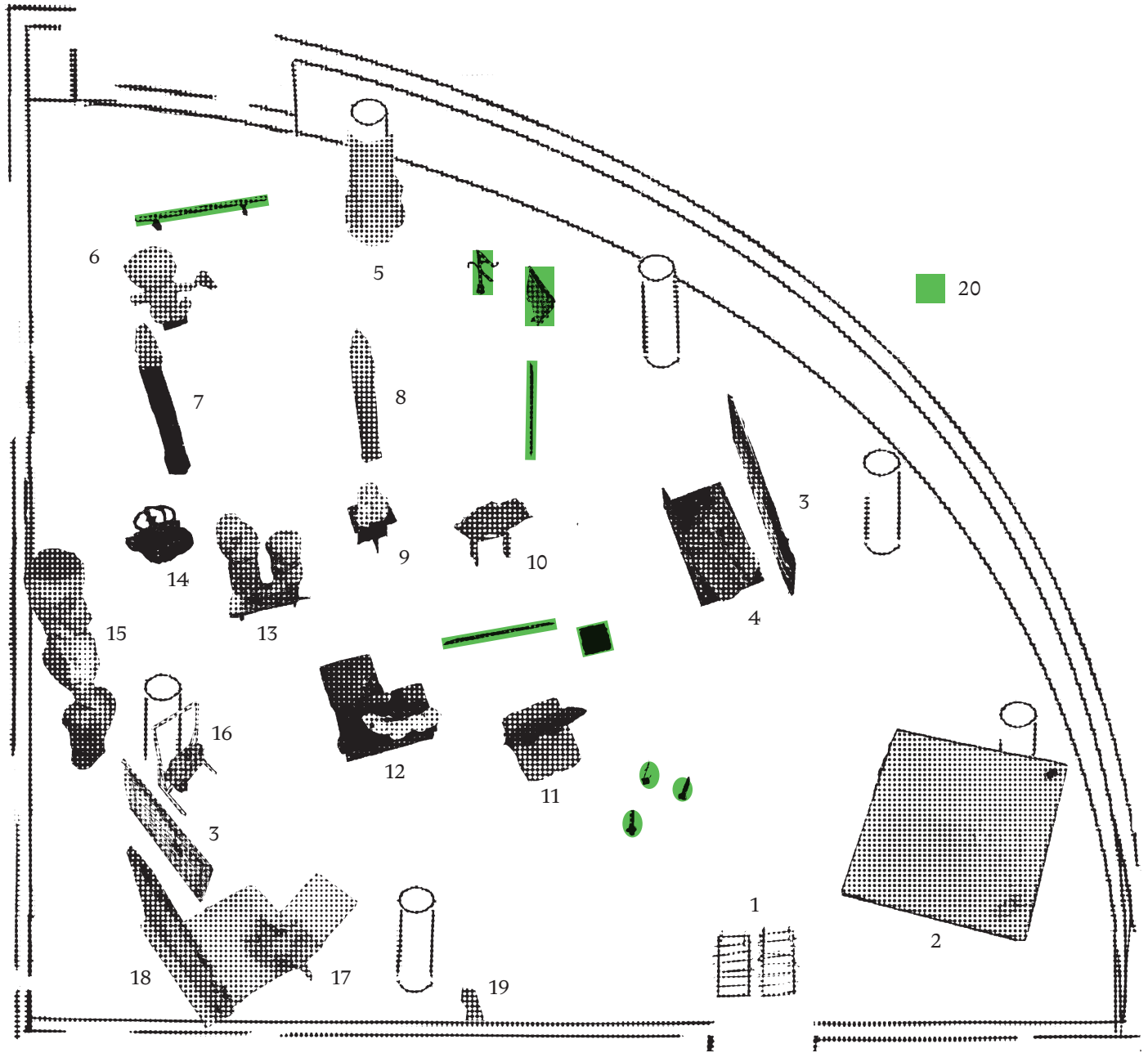
정지현의 〈오른쪽 폐기〉(2023)와 〈왼쪽 폐기〉(2023)는 폐차장 인근 길가에 적재된 자동차 폐기물을 아이폰으로 3D 스캐닝한 후 납작해진 데이터에 양감을 주어 3D 프린팅한 작업이다.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기호화되었던 사물이 더이상 기능을 못하고 버려지면서 사물은 이름을 상실하고, 다시 물질로 복기한다. 날것으로 이행하는 사물을 스캐닝해 출력하는 것은 실재적 본질이 사라진 사물의 임시적인 상태를 기술의 힘을 빌어 붙잡고, 실체화하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정지현은 정보의 누락이나 기술의 한계가 만들어낸 3D 프린팅의 성긴 섬유 조직과 어긋난 경계를 모순적으로 드러내어 사라진 물질성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기술이 생산한 이 미완의 덩어리 위로 다른 재료를 손으로 덧붙이거나 갈아내는 등 반복된 노동과 조각적 행위를 더해 굳어 있는 물질에 운동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완성된 정지현의 조각은 마

치 오랜 시간 풍화나 침식 작용에 의해 마모되고 소멸된 듯한 미감을 주는데, 이는 원형으로부터 떨어진 사물이 점차 추상의 세계로 옮겨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이러한 조각적 형질의 발현은 전시장에 함께 놓인 〈손꽃〉(2023), 〈소매손〉(2023), 〈멀리서 온 토르소〉(2022) 등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정지현은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풍경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거나 용도 폐기되는 도시의 무수한 산물을 발견할 때 그 대상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수집, 분류, 재조합하고, 사물의 고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물질적 전환을 꾀한다. 예컨대 전시장을 환히 비추는 〈더블데커〉(2018, 2022 재제작)는 길거리에서 발견한 7m 폐간판을 해체해 만든 조각이다. 이 작업은 무언가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간판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대신, 전시장에서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조각이자 조명으로 작동한다. 침출수 처리장에 버려진 각종 구조물과 자재로 제작한 조각 시리즈 〈시설〉(2022)은 군집을 이루는 설치 작업 〈공원〉(2022)이 되어 공간을 점유하기도 하고, 기능을 한시적으로 전환해 〈오른쪽 폐기〉를 올려 두는 단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정지현은 폐기 예정이었던 아트선재센터의 지난 전시 구조물들을 다시 전시장으로 불러와 자신의 조각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살피며 전시장 곳곳에 위치시킨다. 새로운 조건과 시간성 안에 재설정된 이 구조물들은 조각적 감각으로 변주된 모양과 형태로 전시장 내 모종의 영역을 조직한다. 기존 전시장에서 소비된 기물이 재활용되어 다른 모양으로 조각과 엮이는 가변성은 도시 환경에 부유하는 부산물과 버려진 폐기물을 가져와 고정되지 않은 낯선 형태로 유동하게 하는 작가의 만들기 방식과 나란히 한다.

《정지현: 행도그》는 실제 세계에서 추출한 사물의 형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을 만들고, 우연성에 기대어 새로운 형질과 형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만든 풍경이다. 존재하는 것을 허물거나 없던 것을 세우는 정지현의 작업은 실재와 허상 사이에 벌어진 감각의 틈과 경계 속에 표류하다 어느 순간 조각의 감각으로 연결되고, 실체화된다. 정지현은 “배열의 이동과 조합의 끝없는 변전의 끝에는 사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하는 서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이미지가 언어화되는 순간을 피해 끊임없이 유예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상실된 것, 불완전한 것, 분열된 것은 그의 조각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리를 찾아간다.

지도



1. 〈스탠드〉, 2023, 철, LED 조명, 가변크기
2. 〈스퀘어〉, 2023, LED 조명, 포그머신, 알루미늄, 철, MDF, 368×368cm
3. 〈더블데커〉, 2018(2022 재제작), 간판, LED 조명, 철, 선풍기, 가변크기
4. 〈오른쪽 폐기〉, 2023, 혼합재료, 53×235×124cm
5. 〈더 퍼스트 리본〉, 2021, 철망, 철, 214×130×110cm
6. 〈최후의 월디〉, 2022, 우레탄 폼, 177×148×106cm
7. 〈멀리서〉, 2023, MDF, PLA, 혼합재료, 360×45×45cm
8. 〈멀리서 온〉, 2023, 멜라닌 폼, 320×35×27.5cm
9. 〈멀리서 온 토르소〉, 2022, 스펀지, 레진, PLA, 63×53×55cm
10. 〈스웍(가벼운)〉, 2022, PLA, 철, 188×147×41cm
11. 〈스웍(무거운)〉, 2022, 알루미늄 주조, 철, 137×147×100cm
12. 〈소매손〉, 2023, SLA, 98×163×60cm
13. 〈부츠〉, 2022, FRP, 철, 215×190×115cm
14. 〈미세스 브라운〉, 2021, FRP, 120×120×110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15. 〈해치〉, 2021, 우레탄 폼, 390×80×110cm

온라인에서 만난 익명의 사람과 서로 스캐닝 데이터를 교환하여 얻은 아리스티드 마올(Aristide Maillol, 1861-1944)의 청동 조각상 〈강(La Rivière)〉(1938)의 3D 데이터를 레진으로 프린팅한 〈멀리서 온 토르소〉(2022)는 작가의 상상적 공간에서 조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지구 반대편에 굳건히 자리를 가지고 있던 무거운 물질이 지금 이곳에 당도하며 가벼워지고 분해되고 재조립된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아득히 먼 지리적 공간과 ‘청동과 데이터’라는 대비되는 물질성, 그리고 ‘분해와 재조립’이라는 형태적 변화는 멀어짐으로써 가까워지는 매우 특수한 예술적

실천인 조각의 시간성 자체에 관한 비유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것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딘가로부터 떠나왔다는 것.

즉, 이동이다.

(중략)

“모든 견고한 것들이 대기 속으로 녹는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현대성을 관통하는 이 유명한 문장은 정지현의 조각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하기에도 적절한 것 같다. 여기서 몇몇 오해를 피하자면, 그가 무너뜨리고 다시 생성하는 것은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다. 알만한 것을 알만하지 않게 만드는 눈속임을 통해 마치 끊임없이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보다는 수고스럽게 사물의 표면을 떠내어 형태를 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그러면 닳은 형태는 남지만 저것을 구성하는 물질은 모조리 사라진다. 남은 그것은 무언가와 여전히 닳았지만 닳은 저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된다. 그리고 정지현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만 이러저러하게 관여할 뿐이다. 예컨대 〈최후의 월디〉(2022)나 〈해치〉(2021)는 공공기관의 마스크트 조형물의 표면을 알루미늄 망으로 떠내고 이를 거푸집 삼아 우레탄 폼을 채운 후 남은 것이다. 남은 것은 가볍고 귀엽지만 어딘지 으스스하다. 어떤 것은 선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은 머리 한 귀퉁이가 무너져 있다. (중략) 각각의 작품은 저마다의 조각적 사건을 가지고 있고, 정지현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멀리 나갔는지를 확인하며, 그 멀리 감이 동시에 무엇과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하며.

— 『가우지』(2022)에 수록된 이한범의 글
「멀리가는 조각」에서 발췌.

16. 〈에어 해치〉, 2023, 알루미늄 망, PLA, 철, 220×105×86cm
17. 〈왼쪽 폐기〉, 2023, 혼합재료, 47×194×150cm

18. 〈클라우드〉, 2023, PLA, 85×94×8cm
19. 〈손꽃〉, 2023, SLA, 22×50×29cm
20. 〈공원〉, 2022, 철재 파이프, 나무, 스테인레스 스틸, LED 조명, 가변크기

〈오른쪽 폐기〉(2023)와 〈왼쪽 폐기〉(2023)를 보자. 일견 이 두 작품의 표면은 돌조각처럼 매우 단단하고, 모더니즘 조각 같은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유심히 보면 이상할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두께, 산업 기물이 기계적으로 이어진 구조, 손과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각도에 만들어진 반복적인 구멍들, 작가가 구상하고 손으로 만져서 형성한 것이 아닌 모양이 여럿 있다. 정지현은 자동차 폐기물을 스캔한 데이터의 3D 프린팅 출력물에 FRP 수지를 덧대고 이를 다시 그라인더로 갈아, 느리고 직관적인 손의 작용을 빠르고 차갑게 날조된 출력물 위에 얹는다. 소조와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조각의 과정으로 출력물의 사물성을 고민하고, 물질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과정이다. 그는 이처럼 기계적으로 몸을 갖게 된, 속이 비어 있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고민하고 여기에 손의 결정을 덧대지만, 조각에 나타난 핏기 없는 기술의 텅 빈 부분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정한다.

전체에서 부서진 파편처럼 보이는 이 조각에서, 출력에 의한 것과 손의 작용에 의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 태생을 단번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조각은 형태적으로 사실과 상관없는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다.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존 리얼리즘의 효용성과는 다르게 그저 그럴 듯해 보이는 상황, 프로토타입일 뿐임이 명확한 태도에는 그 형태가 재현하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태여 생겨나게 된 이유나 과정을 비롯해 여기서 생겨난 물성을 보게 한다. 정지현은 자신이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손의 작용은 불가분하다는 상호모순적인 이 상황을 해명하거나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간다.

— 전효경의 글 「빈 세계」에서 발췌.

〈공원〉(2022)은 오랜 기간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녹지로 조성하며 발생한 다량의 메탄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시설의 폐자재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2021년 정지현이 1년간 사용했던 난지도의 작업실은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으로 변경되며 생겨난 침출수 처리장 바로 뒤에 있었다. 처리장에서 용도 폐기된 파이프나 난간 구조물, 배수구 덮개 등은 이내 정지현의 작업실에 끌려 들어와 각각 그 형태와 표면이 다시 선택, 편집된다. 원본과 닮은 채 놓여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 변환을 거친 사물들은 우리 인식의 경계를 교란하며 전시장 안에서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 낸다. 〈공원〉은 작가가 전시장 안에 어떤 구획을 긋고 돌연 외부의 공간을 가져다 붙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산업 폐기물과 광장의 야간 조명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이 경계는 관객에게 미술 감상을 위한 실내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지만, 동시에 텅 빈 공원을 배회하는 듯한 공간감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이 기묘한 집합체는 콘크리트로 빠르게 지어진 도심의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를 연상시키는데, 누구의 유년도 될 수 있는 익명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더블데커〉(2018, 2022 재제작)는 사선으로 정렬된 여러 개의 LED 조명이 금속 프레임 안쪽에 장착되어 있고 날카로운 선을 그리는 빛이 반투명 천으로 덮여, 넓고 균일한 빛의 표면을 만든다. 전시장 전체를 비추는 사각의 인공 달 같은 〈더블데커〉는 도심 대로에 걸린 대형 간판의 스케일과 LED 조명의 산업적 질서로 인해 전시장 내에 흥미로운 공허함을 전달한다.

— 김소현-소현이의 글 「어바웃 파크」에서 발췌.

정지현: 행도그
2023.11.3.-2024.1.21.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2

기획
조희현
(아트선재센터 전시팀장)

진행 보조
이예인
(아트선재센터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글
조희현
편집
김소현, 이예인

그래픽 디자인
강문식

© 2023. 저자,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작가 소개

정지현(b. 1986)은 도시 환경에 반응하며 그 속에서 부유하는 부산물과 폐기된 산업 자재 등을 재료로 삼아, 조각의 기능과 움직임에 관해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공존 부분을 추출한다. 버려진 것과 인정된 것, 관습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들의 겹쳐진 상태를 해체, 재조합한다. 최근 개인전으로 《가우지》(인천아트플랫폼, 2022), 《다목적 헨리》(아뜰리에 에르메스, 2019) 등이 있다. 2023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아티스트 토크

일시
2023.11.16. (목) 16:00
장소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L

정규 도슨트 전시해설

일시
화-금 15:00
토-일 15:00, 17:00
참여 방법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관람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권

25-64세: 10,000원
19-24세: 7,000원
9-18세: 5,000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7,000원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 ·
CIMAM ·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82 2 733 8949
F +82 2 733 8377
W www.artsonje.org

